



유성엽 위원장,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 원 확보

- 정읍 영원면 농수로 개선사업
- 고창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 사업
- 신림면 자포리 해암교 가설공사 추진 청신호

□ 정읍 영원면 농수로 개선사업과 고창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 사업 및 신림면 해암교 위험교량 제거설 사업이 국비 확보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.

□ 12일, 국회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(정읍·고창, 민주평화당)에 따르면 정읍 영원면 농수로 개선사업 6억 5천만 원, 고창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 사업 8억 원, 고창 신림면 자포리 해암교 가설공사 3억 5천만 원 등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 원이 확보되었다.

□ 정읍 영원면 장제리 청량-부안 백산 간 1.5km 구간은 수로 폭이 좁아 60mm 이상의 폭우 시 인근 20ha 농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매년 반복되어 왔다. 이에 수로 관 개거 공사의 필요성이 계속 요구되어 왔다.

○ 이번엔 사업비 6억 5천만 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함에 따라 주변농지 상습 침수 예방을 위한 수로관 개거 공사가 가능해지고, 이를 기반으로 영농편의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또한 도내 최초의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고창 운곡람사르습지는 다양한 관광수요 창출이 가능한 지역으로 각광받아 왔다. 이러한 관광 수요를 흡수하고,

지역 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숙박시설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.

○ 이번엔 지역현안수요로 부족한 8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음에 따라 에코촌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.

- 특히 에코촌 조성사업이 추진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창 고인돌 유적과 다양한 선사문화유적을 비롯하여 환경부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지정된 용계마을 등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자연 친화적인 생태관광인프라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- 아울러 관광객 유치로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그동안 노후화로 인해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던 고창 신림면 자포리 해암교의 제거설을 위한 사업에도 3억 5천만 원이 반영되었다.

○ 해암교는 교각 및 하부 슬래브 등 교량 전반에 철골노출로 상당부분 부식이 진행되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.

- 이번 제거설 사업 예산 확보로 해암교 제거설로 교량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, 지역주민들의 통행과 차량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유 위원장은 “지역 발전과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교부세를 확보하게 되어 다행스럽다” 며, “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과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” 고 말했다.

□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“앞으로도 지역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국비는 물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항상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” 고 밝혔다.